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올해 지나온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식의 말씀 / 인도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 / 말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부터 수확의 계절 가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가문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0편 3~5절, 말은 이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설교 / '감사의 절기' 말은 이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고백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하는 데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뒷면에계속 ▶

먼저 우리는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멈춰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곧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성찰하여 자각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거울 앞에 멈춰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사람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생명 따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요,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빛어진 생명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한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물, 공기, 대지, 하늘, 초목, 달과 해, 산소, 열매 등 이 모두가 우리 삶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 추석 명절에 우리 심령에 감사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